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7월 25일(주일) 제1354호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8월 2일부터 6일까지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새벽기도회 생전 설교영상 상영, 8월 2일 추모예배

오는 8월 2일은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다. 온누리교회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하용조 목사를 기리기로 했다.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기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예배(월~금)에서는 하용조 목사 생전 설교 영상이 상영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6시, 양재온누리교회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참여할

수 있다.

새벽기도회 주제는 8월 2일(월) '성숙에 이르기까지', 8월 3일(화) '성숙한 사람의 모습', 8월 4일(수) '유혹을 떨리하라', 8월 5일(목)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8월 6일(금)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추모예배는 8월 2일(월)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드릴 예정이다. 하용조 목사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추모예배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영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가 사회를 보고, 정진호 장로(당회서기)가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1976년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 개척, 2005년 CGNTV 설립 등을 통해 한평생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헌신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 소나타>, <하용조 목사의 큐티하면 행복해 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예수님의 7터치> 등 90여 권이 있다.

한편 두란노서원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기념 도서를 출판했다. <하용조 강해서

전집>과 <하용조 목사 평전>이다.

<하용조 강해서 전집>은 하용조 목사의 강해(講解) 설교만을 모았다. 창세기 5권, 느헤미야 1권, 이사야 1권, 마태복음 5권, 요한복음 5권, 사도행전 3권, 로마서 2권, 에베소서 1권, 히브리서 1권 총 24권이다.

<하용조 목사 평전>은 하용조 목사의 삶과 목회, 설교와 선교사역을 다뤘다. 복음, 성령, 교회, 목회, 예배, 설교, 전도·선교, 교육, 긍휼사역, 문화, 고난, 생애와 목회 사상 등 12가지 주제로 하용조 목사를 다시 만날 수 있다. <하용조 강해서 전집>과 <하용조 목사 평전>은 두란노서점과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문의: 02-796-2310

/ 정현주, 홍하영 기자

19명 이하 예배당 예배 허용

7월 20일부터 '종교시설 방역 지침 개선'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당 예배 예약

온누리교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 지침 개선'에 따라 예배당 예배 인원을 일부 확대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예배당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인 이하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토요주일예배, 일요주일예배에 19명 이하 인원이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기준으로 본당 2층과 비전홀, 두란노홀, 한동홀 등 부속실에 각 19명씩 출입이 허용된다. 본당 1층에

는 예배 진행 필수 인력이 상주한다. 나머지 캠퍼스도 방역지침에서 허용하는 인원은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아웃리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VR 선교체험관 운영도 당분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온라인 아웃리치 열기가 뜨겁다. 온라인 아웃리치 은혜가 대면 아웃리치 못지않게 풍성하다는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아웃리치에서는 현지 체험, 선교사 위로, 선교사 부모 초청 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아웃리치 후속 모임도 활발하다. 남양주온누리교회 다산다락방은 온라인 아웃리치 후속 모임으로 '병중인 선교사 자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 아웃리치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각 공동체 선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김영선, 홍하영 기자

선교한국 온라인 집회 'ON다 대회'

8월 2일~5일까지 온라인

선교한국 온라인 집회 'ON다 대회'가 막 오른다. 8월 2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선교한국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규모의 청년 학생 선교대회다. 이번 선교한국 대회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선교전략, BAM', '하나님의 눈으로 이슬람 바라보기'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선교한국 홈페이지(missionkorea.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3천 원(온누리교회로 등록하면 1만5천 원). 문의: 02-563-2468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요!

휴식하기,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요즘 거의 매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어요. 폭염(暴炎)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데 가장 높은 기온(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주의보’,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경보’가 내려진답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도 앓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자연재해예요. 그래서 폭염을 잘 보낼 수 있는 건강수칙이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한여름 가장 더운 시간은 정오(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이 시간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외출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와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아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손과 발 등에 꼼꼼히 바르고 음료나 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답니다.

둘째,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아요. 무더운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땀을 많이 흘려서 어지러움이나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생수와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하루 리듬이 깨지기 쉬워요. 신체 리듬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이 필요하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계획표 짜기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오늘 저녁 부모님과 함께 건강한 여름 나기 위한 생활계획표를 짜보아요!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내 아이를 위한 책 한 권

문해력을 키워라!



〈하루 10분 초등 독서록 쓰기〉

이새롬 저 | 마더북스 | 1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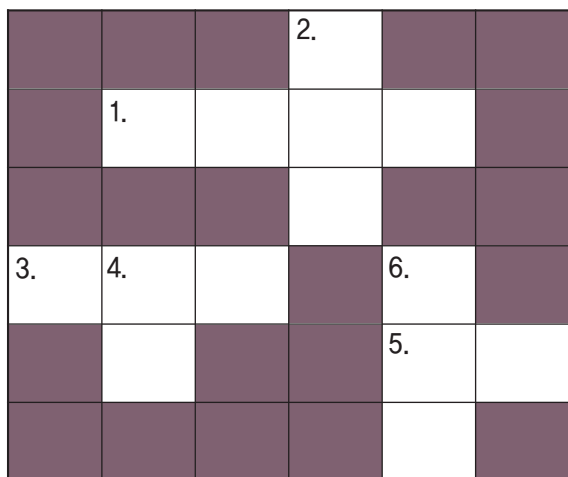
형성된다고 했다. 이 책에는 저자의 경험이 잘 녹아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맞춤형 독서록 쓰기 노하우를 제공해서 가정에서도 쉽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두란노서점과 두란노서원 홈페이지(www.duranno.com)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EBS 다큐프라임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았다.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결국 학습 부진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읽기가 부족해서라고 지적한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친숙한 요즘 아이들은 책을 멀리한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책만 읽는다고 문해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루 10분 초등 독서록 쓰기의 기적〉의 저자는 책을 읽고 한 문장이라도 손글씨로 독서록을 쓰라고 제안한다.

17년 차 초등교사이자 9년 동안 독서록을 가르친 저자는 독서록 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랍게 변한다고 말한다. 사고력, 공감 능력, 글쓰기 실력, 학업성취의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한 자아존중감이

성경, 알고 싶어요!



1.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이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도우셨어요(출 13:21). 또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 이 기둥을 사용하셨답니다(출 33:7~11).

2.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 기둥을 사용하셨어요. 밤에는 이 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셨어요(출 13:21).

3.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곳으로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구분된 곳이에요(출 2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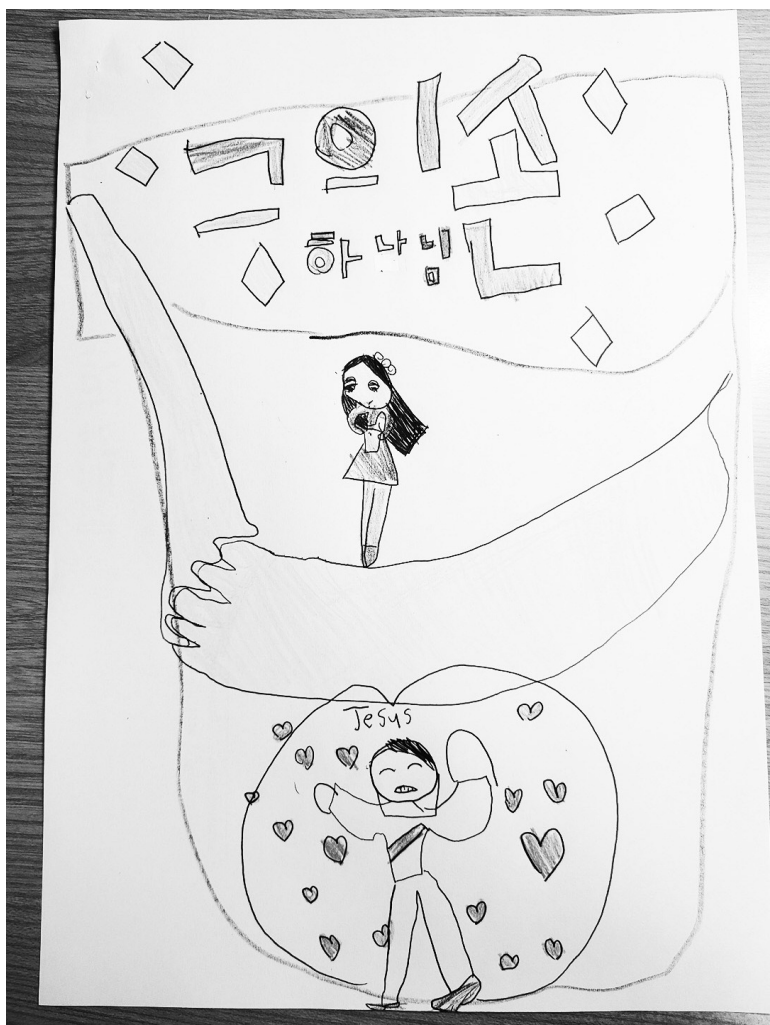
4.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로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이것을 짓는 일을 마쳤어요(출 39:32).

5. 죄와 구별되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완성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출 40:9).

6.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어요(출 34:29).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들 작품



〈그의 손〉

커다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 최윤서 학생(서빙고 꿈땅 유년1부)



3. 얼음 냉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교회는 재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역사가들은 주후 100년대부터 500년까지를 ‘교부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교회는 박해의 그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조롱과 차별만이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이 늘 존재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4세기 초 로마 시민의 8~12%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전염병과 같은 재난과 타락한 세속 권력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게 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예배에 초청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 인내,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냈기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일수록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된 공동체가 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시각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속히 고통 속에 있는 사회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온 인류에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단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적들이 주 앞에서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시 66:3-5).

원수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하고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

믹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10~12a절).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백성을 시험하시고 은처럼 단련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의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 그물을 치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물에 걸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더욱 온전한 구원, 더욱 온전한 자유, 더욱 온전한 신앙,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적의 은혜만 베푸시는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버림받았다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단련을 통해 빛어집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라고 했습니다. 은을 강조한 것은 세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표

은을 강조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을 단련하는 모든 과정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단련하실 때 더 강하게 붙잡고 돌보십니다. 은은 인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돌보심이고, 더 붙잡으심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롭니

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 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약 1:2~4).

둘째, 은을 단련하는 일은 거울처럼 제련사의 모습이 비칠 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제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단련과 제련의 삶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개역개정).

욥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의인인 욥도 단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이들은 얼마나 많은 단련이 필요한가’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태워져야 할 죄가 있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이들은 얼마나 많이 태워져야 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련의 열매 ‘의로운 평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히 12:6~7).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히 12:11~12).

하나님의 단련 과정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의로운 평화의 열매입니다. 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면서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를 내버립니다. 의로운 평화는 사람들이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정의의 부르짖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깨뜨리기 마련입니다.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은 언제나 정의를 무너뜨리기 마련입니다. 의로운 평화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주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12b~14절).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지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그리고 단련을 통해서 서원을 지키는 삶,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 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다”(16~17절).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받는 영혼은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게 됩니다.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풍성한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통 속에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순수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시험이 없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단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고통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도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20절).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단련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등에 짐을 지우시고,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과 물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격은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양심이 있다.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성을 추구하고, 이성적 사고와 금지된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다. 인격은 매너와 에티켓, 윤리와 도덕, 법을 지키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간다.

인간의 성은 짐승과 다르다. 인간의 성은 인격을 통해 표현된다. 짐승의 성행위는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성은 인격적이고 도덕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성윤리를 만들어서 정해진 규범 안에서 누리는 성적 만족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간들은 남녀가 혼인제도를 통해서 인격공동체인 가정을 이룬다. 인간만이 가진 특권적인 제도이다. 이에 반해 짐승들은 무리를 이루고 산다고 하지, 가정을 이룬다고 하지 않는다.

혼인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성적 신의(fidelity)를 지켜야 한다.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와 질서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정상적인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이와 몸을 섞지 않는다. 또한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통해서 자신의 유전물질을 가진 자녀를 낳는다. 부부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 가족

이나 동물의 번식처럼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합부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가정은 번식 집단이 아니라 인격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인격과 도덕적 수준을 무시하고 생식본능과 성적 쾌락만 추구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인간의 가정은 질서와 신의에 기초한 인격공동체다.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외국 남성의 정자를 사서 아이를 출산해 논란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와 매스컴의 태도이다. 정부는 이를 환영하는 정책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매스컴은 흥미만 불러일으키면 못 할 일이 없다는 듯이 TV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돌만 낳아 잘 기르자”,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 산아제한 언어 선동에 매몰되어 속아왔다.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에 세뇌되어서 2020년 ‘출산율 0.84’라는 초저출산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으로 교체해버렸다. 한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 이루는 가정을 해체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다고 선

동하고 있다. 심지어 비혼출산이 인구감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비혼출산은 치명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정부가 합부로 나설 일이 아니다.

윤리를 상실한 것은 매스컴도 마찬가지다. 매스컴은 비혼 출산자를 버젓이 TV에 출연시켜 비정상적인 사례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배우자에게 구속받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하지 않고도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유전자를 사고파는 비혼 출산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상품화와 비인격화를 낳는다. 당연히 약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홀대 되는 우생학과 착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의 정자인지 모르기에 근친 자녀 생산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에 대한 복지문제가 우려스럽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다. 키우기 힘들다고 길에 버려지는 반려견처럼 아이들이 버려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가정의 가치와 개념을 무너뜨리려는 입법 시도나 이를 반기는 발언들은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를 해체하는 해악 행위이다. 만약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면 대리모를 통해 자신의 아이를 낳으려는 비혼 남성들의 요

구도 막기 어렵다. 인간복제나 대리모 임신, 정자 및 난자 매매 등은 인류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 의술과 과학의 발달로 많은 것이 가능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인격과 질서를 파괴하는 성문화는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비인간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500년 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자신의 머리에 동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충동이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비윤리적인 소유욕이나 유혹이 있을 때 그 생각이나 욕망이 행동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인격을 지닌 인간이라고 존중받을 수 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지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필요한 때이다.



이명진 소장
(명이비인후과 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내가 경험한 창조신앙

창조신앙, 그것은 초석이자 반석!

황해도 장연에서 월남하신 부모님의 신앙심이 매우 돈독하셨다. 특히 어머니는 1년 365일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가난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한방을 썼는데 밤에 무슨 기적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어보면 어머니가 기도하시곤 하셨다. 가난했지만 우리 집에는 늘 손님으로 복적였다. 그 안에서 느끼던 풍성함은 아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부여주시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 같다.

청년 시기 믿음의 위기가 도래했다. 대학에 입학해서 이공계통으로 전공을 정하고 KAIST 석사 과정을 졸업할 즈음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되었고 가입을 권고받았다. 그 순간 나는 진화론이 과학임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창세기 1~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의심의 구름이 마음 한쪽에서부터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에 ‘창세기는 비과학적이므로 사실이 아니고 신화일 뿐’이라는 불신앙의 땀이 봉인된 상태로 있었다. 불신앙의 땀에 진화론의 거짓 속임수가 작은 구멍을 뚫은 셈이 되었다.

이 구멍을 메우고 터지는 과정이 1년 넘게 반복됐다.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데’라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신앙상담을 받는 것도 꺼려라웠다. 결국 창세기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결론으로 방향이 기울어졌다. 믿음이 쏠살같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의심되니까 그분의 전능하심도 의심되었고, 기도는 점점 더 형식화되었다.

미국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한인 학생들의 교제권 중심에 있던 한인교회를 가게 되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달게 느껴졌다. 말씀이 내 영혼 안으로 스며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다시 뜨거워지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공부그룹 및 중보기도 모임에 매주 참석하게 되었다. 또한 시카고 KOSTA 유학생 수련회에서 영적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 진화론이 사실이고 창세기는 신화라고 속이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던 모든 공격이 힘을 잃어버려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창세기 1~11장 말씀을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

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전능하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화론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믿어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경의 이적과 기사들이 문자 그대로 믿어지게 되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찬양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사 45:7).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임을 믿는 창조신앙으로 나를 새롭게 출발시키셨다. 진화론의 거짓 속임수를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모태신앙 대신 창조신앙이라는 반석을 구축하게 하셨다.

내가 양재온누리교회 창조선교팀을 섬기게

된 계기가 있다. 젊은 시절 진화론의 시험에 빠져 신앙의 퇴보를 겪었던 일이 30년 후 내 자식들에게도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세대를 건너뛰며 흰 도화지 같은 청소년의 마음과 생각에 진화론의 거짓을 사실이라고 속이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차세대와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의 언어와 지식으로 진화론의 허구를 밝혀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에 오염되기 전에 창조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나에게 창조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의 초석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부여받는 반석이라고 생각한다. 창조신앙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는다.



김정민 집사
(서초C공동체,
다임바이오 대표)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건강한 의사소통 경험이 꼭 필요하다!

건강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부부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데 필수요소이다. 부부는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마음, 어려움 등을 표현한다. 배우자는 그것을 온전히 듣고 수용함으로 상대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통을 통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생각과 바람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부부가 경험한 의사소통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집 근처에 ‘최고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래된 식당이 있다. 가끔 가족끼리 가는 식당이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당 이름의 의미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내가 이해하고 있던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식당의 의미는 ‘최-고집’으로 최씨의 프라이드(pride)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이해했던 의미는 ‘최고-집’으로 베스트(최고)로 음식을 잘하는 곳이었다. 정말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표현되는 말은 같지만 서로 이해하는 의미가 크게 달랐다. 아마 서로가 살아오면서 기억에 저장하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이해하는 인식의 체계로 인해서 다른 이해를 했던 것 같다. 서로 다른 의미의 해석에 적지 않게 놀랐고 황당하기까지 했다.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다. 내가 이 말을 무시와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다툼이 되고, 다툼이 커지면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에 대한 의미를 묻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된다. 다행히 나는 아내의 말을 책망이나 무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이해하는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일상에서 마주한 정말 소소한 경험이었지만 부부 의사소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서로가 얼마나 많이 오해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의사소통으로 인해

지 않으면서 머물러 준다면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듣기는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단순히 듣는 수준을 넘어서 ‘잘 듣는 것’은 더 어렵다. 잘 들어 주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마음’과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종종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거나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된다. 분주하게 살면서 상대방을 소홀히 대하거나 ‘이해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준다.

“건강한 의사소통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의 필수요소”

얼마나 많이 갈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부의 의사소통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올슨(Olson)은 부부와 가족의 의사소통 수준을 듣기, 말하기, 자기 개방, 명확성,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존경과 관심의 차원에서 평가한다. 듣기는 공감적이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이고, 자기 개방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존경과 관심을 표하고,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 잘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다.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나눌 때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감정과 정서 등 마음을 중점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특히 아내들은 현재 남편이 무엇을 느끼고, 그 마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마음을 나눌 때는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들도 나눌 수 있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도 나눌 필요가 있다. 불편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

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다. 침묵으로 일관할수록 서로 관계만 멀어질 뿐이다.

우리 부부가 대화하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의견에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이 쌓인 부부라면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경험한 부부라면 의견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의사소통을 하면 부부 관계는 평안한 길로 가게 된다. 하지만 비난과 조롱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갈등의 시작점이 된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의사소통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 오늘 밤 부부가 함께 침대에 앉아 친밀감을 쌓는 대화를 해보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상을 나눌 수도 좋고, 지금까지의 추억을 나눌 수도 좋다. 부부의 문제점들을 나눌 보면서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생각해봅시다

자기 증명의 시대, 무엇을 증명할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친구나 이웃 간에 접촉을 피하다 보니 블로그나 SNS를 통한 온라인 만남이 활발해진 요즘이다. “우리 인증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인증샷’을 많이 올린다.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잠자는 것조차 인증샷을 올리 지 않고는 못 배긴다. 재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질까봐 증명하려는 몸짓인 것도 같다. ‘좋아요’라는 표시가 올라갈수록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지만, 인증샷을 잘못 올렸다가 물매를 당하기도 한다.

팝의 전설 마돈나는 성공적인 무대를 마치고 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는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무대에 서면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좋아하는 것은 아직 젊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라. 나는 가정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어중간한

서열인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썩 뛰어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해보라며 시작한 것이 한문 서예다. 당시 서예 인구 중에서 여성 숫자가 적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을 받았다.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기쁨도 없었다. 하지만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놓을 수도 없었다. 그즈음 내 안에서 작은 깨달음이 일어났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다는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다. 주님이 나를 증명해주셨으니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관념이 아닌 실제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명하고 싶

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나타난 현상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막 16:20).

사실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기적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하고 싶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고후 13:5).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다. 나는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다. ‘혹시 낫지 않으면 무슨 망신일까’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니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몸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의 포로 되고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영적 눈이 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입으로 증명하는 자”라고 선포한다. 자기 증명 시대, 나는 무엇을 증명할까? ‘예수 증명’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자.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명화로 읽는 성경

리더십의 핵심은 권한 위임!

안 반 브롱크호스트 ‘모세에게 조언하는 이드로’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중국을 통일하고 춘추전국시대를 끝낸 진시황은 제국의 법 제정과 시행 그리고 재판까지 모조리 혼자 처리했다. 그는 전국을 사찰하는 도중에 과로사(過勞死)했다. 청나라 옹정제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독설로 신하들을 후려쳤다. 그는 중국을 통일하고 13년 만에 과로사했다. 조선 세종은 죽기 사흘 전까지 직접 정무를 행했다. 정조가 “내가 옷을 입은 채로 밤을 새운 것이 25일째”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죽음을 몇 개월 앞둔 때였다. 이처럼 모든 일을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스타일의 군주를 ‘만기친람(萬機親覽; 온갖 정사를 임금이 친히 보살핌)형’이라고 한다.

내가 아는 A기업 B회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의 집무실 탁상은 늘 결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다. 어떤 대학교 C모 총장의 별명은 ‘C주임’이다. 주임이 처리할 일까지 총장이 직접 챙기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부처를 돌아보면 장관 중에도 대통령급 장관이 있는가 하면, 사무관급 혹은 주사급 장관이 꼭 있다.

언젠가 한 기업 회장의 회고록을 집필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담당 임직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지어 그들은 외부인인 나를 통해서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려 안간힘을 썼다. 회장이 일의 대소(大小)와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이었다. 이미 공식기구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가 예사였다. 이렇듯 아랫사람을 ‘영혼 없는 아바타’로 만드는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그 조직의 수장이다. 우리 주위에 이런 조직이 의외로 많다.

베타형 모세 vs 알파형 이드로

성경 인물 중에는 모세가 대표적인 만기친람형 리더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신음의 땅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자유와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세출의 업적 때문에 모세를 ‘타고난 리더’로 착각한다.

하지만 모세는 타고난 리더가 아니었다. 심리학자 루이스 코즐리노의 분류에 따르면 모세는 타고난 리더 즉 ‘타고난 알파형’의 사람이 아니다. 모세는 ‘타고난 베타형’이다. 타고난 베타형은 사회 구조에 순응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한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주목



안 반 브롱크호스트 ‘모세에게 조언하는 이드로’ (165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 소장).

을 받으면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들은 타고난 팔로워(follower)인 것이다.

처음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모세가 늘어놓은 변명들은 그가 전형적인 베타형임을 보여준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출 3:11).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출 4:1).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출 4:10).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모세라는 중보자(仲保者)를 통해 실현하려 하셨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바람에 미디안에 두고 와야 했던 아내 심보라와 자식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타고난 알파형’ 리더였다. 타고난 알파형은 리더의 역할을 배우지 않고도 척척 잘 해낸다.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직관과 내적인 이상에 의지해

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리드한다. 현재 조직의 문제점,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를 대변에 파악한다. 조직의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타고난 알파형 리더였던 이드로는 수십 년 동안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이미 그 리더십을 검증받았던 것 같다.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사위를 예방했던 이드로는 모세와 머문 며칠 동안에 모세와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현황과 문제점을 즉각 파악했다.

이드로의 조언과 모세의 깨달음

안 반 브롱크호스트(1603~1661년)는 렘브란트와 함께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조각가이다. 그는 17세기 초 로마에 머무는 동안 카라바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른바 ‘위트레흐트 카라바기즘(Utrecht Caravaggism)그룹’에 속한다. 카라바조는 명암의 극단적 대비를 통해 그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테네브리즘의 창시자이다.

브롱크호스트가 말년에 그린 ‘모세에게 조언하는 이드로’ (1659년) 역시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는 카라바조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림은 타고난 알파형 이드로가 타고난 베타형 모세를 위해 멘토링하는 장면을 잡아낸다. 브롱크호스트는 화면을 상중하 3단으로 나눈다.

가운데 단 정중앙을 보라. 왼손으로 망토를

추스르면서 오른손으로 모세가 들고 온 행정 문서를 가리키며 질책하는 이가 바로 이드로이다. 그의 표정은 “자네가 지금 이따위 문서 쪼가리 하나하나에 연연할 것인가?”라고 묻는 듯하다. 그림 상단 전체에 질게 드리운 어두운 구름은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이드로의 이마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은 광야에 드리운 암운(暗雲)이 이드로에 의해서 결국에는 걷힐 것을 예고해 주는 희망의 상징이다.

그림이 말하는 지금은 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드로는 조직의 수장인 모세를 지켜보았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백성의 재판을 도맡아 하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다.

“여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모세가 자랑스레 대답한다.

“백성들은 일이 생기면 전부 제게로 옵니다. 제가 일일이 그들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거든요!”

이드로는 기가 찼다.

“자네가 하는 일이 참으로 불합리하구만. 그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해서도 아니 될 일이라네.”

“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먼저 일을 대소경중(大小輕重)에 따라 잘 나누게. 그리고 능력 있는 중간 관리자를 뽑아서 잘 교육 한 뒤에 하는 일을 나누어 주게. 안 그럼 자네는 일에 지쳐 곧 쓰러지고 말거야!”

그렇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리더십의 핵심을 보여준다. 최고 리더는 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부터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모두 하부에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최고의 리더는 선택과 집중(choice and focus)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위임(empowerment)할 줄 안다. 위임은 리더십의 제1 덕목이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출 18:24).

아무리 타고난 베타형일지라도 모세는 선택받은 지도자가 아닌가.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모두 수용한다. 이후 모세가 수많은 동역자(co-worker)들과 함께 동족을 어르고 달래며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불편한 자유’ 보다는 ‘안락한 종속’을 선호하는 노예근성에 찌든 그들을 말이다.

그림 하단의 노인들과 가정주부, 목동의 모습은 역할이 분담된 조직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림 중단의 이드로와 모세를 둘러싼 이들은 아마도 모세의 입과 손발이 되어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비롯해서 훌, 여호수아, 갈렘, 브살렐과 오홀리압 등 동역자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도 훈련 속에서 탄생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 위에서 지속 가능하다.

위기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

CGNTV 다큐, 본(本) ‘넘어진 소년에게’

CGNTV가 아주 뜻깊은 다큐멘터리를 또 한 편 제작했다. 다큐, 본(本) ‘넘어진 소년에게’이다. 최승주 권사, 조호진 집사 부부(소년희망공장대표)가 위기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비롯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가정과 사회의 방임 속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는 어른들의 따뜻한 온정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CGNTV 다큐멘터리, 본(本) ‘넘어진 소년에게’는 7월 25일 오후 3시 30분 CGN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조호진 집사(소년희망공장대표, 사진 가운데)가 위기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도시 미자립교회’ 돕는다!

사회선교본부, 15개 교회 지원금 200만 원 전달

정부가 주는 ‘코로나19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도시 미자립교회는 제외됐다. 가뜰이나 어려운 도시 미자립교회들의 사정이 더 어렵게 됐다. 성도 이탈, 헌금 및 지원금 감소 등으로 당장 교회 임대료를 내는 것도 빠듯한 사정이다. 교회 존폐마저 고민하고 있는 도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가 두 팔 걷고 나섰다.

1다락방 1사역으로 도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다락방(성인

공동체 15개)과 함께 15개 도시 미자립교회에 지원금 200만 원(사회선교본부에서 150만 원, 각 다락방 헌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강보 집사(강남C공동체)는 “우리 가까이 있는 도시 미자립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현숙 목사(브니엘교회)는 “당장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온누리교회의 큰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대일 양육자반 수강생 모집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8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강의로 전환되면 주일 오전 8시 선교관 401호에서 열린다. 일대일양육자반은 양육자가 동반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양육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수강신청은 8월 1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9265-1532

차세대 SUMMER PASSION ‘창조_시작’

8월 8일까지 파워웨이브 주일예배 시간 온라인

차세대 파워웨이브 SUMMER PASSION 집회 ‘창조_시작(始作)’이 한창이다. 8월 8일(주일)까지 파워웨이브 주일예배 시간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PASSION ‘창조_시작(始作)’에서는 한국창조과학회 소속 강사들의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믿음의 시작’, ‘세상의 시작’, ‘생명의 시작’, ‘홍수의 시작’, ‘비전의 시작’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다. 이은일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경호 교수(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하주현 교수(경희대학교 의학과 분자생물학교실 교수), 황승아 교사(한빛중학교), 정원종 교사(관곡중학교), 정우성 연구원(삼성전자수석연구원), 오경숙 박사(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물리학박사), 이상두 원장(예은치과 원장) 등이 강의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두란노아버지학교 훈련생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아버지들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 신청은 8월 7일까지 두란노 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 또는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2657-1875

두란노어머니학교 훈련생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주석 연휴 기간 제외).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8월 3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2-2182-9110

“CGNTV 인터넷 수신기 선물하세요!”

CGNTV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가 제한되고, 모임도 자유롭지 못한 선교지 영혼들을 도울 좋은 기회가 있다. CGNTV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하는 것이다.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CGNTV 인터넷 수신기를 선교지에 후원하는 운동이다. 선교지에 CGNTV 인터넷 수신기 1대를 후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만 원(일본 제외 배송비 5만 원 추가)이다. 안정실 선교사(일본)는 “CGNTV 인터넷 수신기를 성도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서 “목회자도 없는 고립된 선교지에는 CGNTV 인터넷 수신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2-796-2243

일본을 위한 ‘온라인 기도세미나’

일본어예배부와 러브소나타 서울 본부가 지난 7월 10일(토) 온라인(Zoom) 기도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전도 대상자, 일본 현지 교회 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김하중 장로(전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가 했다.

이날 김하중 장로는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좋지 않다”면서 “한일 크리스천들이 두 나라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 교회 부흥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전세진 성도(일본어예배부)는 “한국과 일본의 악화된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들의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코타케 리츠코 성도(양재공동체)는 “앞으로 정직한 마음과 사랑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했다.

/ 정현주 기자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

비대면(Zoom) 교육 이해와 도구 활용 실습

가정사역본부 아름다운동행사역 팀에서 지난 7월 17일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비대면 사역 툴(Zoom) 사용 및 전반적인 운영 방법에 관심 있는 성도 70여 명이 참여했다. 박재현 소장(답택터링 콘텐츠연구소)이 강의했다.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에서는 시대 변화와 사역

(교육) 환경 변화, 비대면(Zoom) 교육 이해와 활용, Zoom 운영의 효율적 방법, 비대면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을 실습했다.

김효구 장로(아름다운 동행 담당)는 “이번 원데이 특강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수가 된 비대면 사역을 더 깊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온누리복지재단 3개 시설 신규 위·수탁

온누리복지재단이 3개 시설을 신규 위·수탁한다.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신규로 위·수탁 운영한다.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는 오는 8월 1일(주일)부터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내년 1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온누리복지재단은 총 16개 시설(직영시설 4개소, 수탁시설 12개소)을 운영하게 됐다.

‘보라통독’ 8월 27일 개강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보라통독’이 오는 8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통독하기 원하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라통독)(두란노서원) 저자 이상준 목사

(양재온누리교회)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8월 20일(금)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www.duranno.com/biblecollege에 주차별로 게시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은 OBC 2학점이 인정된다. 문의: 02-2078-3279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옥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뱅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sa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도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균 김미정
김병조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웅 김태완
김현실 김홍중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온 박성배 박주열
박성진 박세웅 박전중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해삼 백인규
변대식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기섭 신원식 스티브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진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박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전진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영호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주기철 주재근
최대홍 최성진 최용운 최혁중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걸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윤수신 장재원 전병현 최종현
최성규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세만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김병석 김세현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권수진 노대규
네트라 뉴이연 최태환
민현식 박근명 박씨마 백승현
성태애 사카트 왈라업 이원준
이성광 이승윤 이진이 윤준석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랑
최일관 최정현 채제미 크리스티안
하루슬란

◆전도사(파트)

강하람 권은영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미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주영 김정미 김경호 김지선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태영
김하은 노동준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소광
박영규 박영우 박이호 박은만
박유진 박지수 박정우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방성주 박진중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서영찬
서영철 송유진 송신애 송우항
송예찬 송소영 신기환 신대중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현
오성광 오태경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유성하 윤신현 윤지은
윤지은 윤태정 윤효정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욱 이상은
이현희 이현식 이형목 이우람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희성 이광명 이광영
임노완 임승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장요한 장지훈 전소리 정성원
정영영 정준혁 정예스터 정연상
정예은 조은광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선미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희준 최원희
한영철 한용태 허정현 황귀희
황인신 황유일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철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용성 김승연 김영수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원배 김원규
김원국 김원식 김윤식 김이곤
김인하 김장철 김종건 김종성
김홍중 김수용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대성
배 문 배홍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서성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석
송재길 송창도 신만민 신영각
신우관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광호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안재수 안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승 유병훈 유한영 유재현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호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우경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준 이재호 이종수
이창남 이 철 이현일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영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무
정도연 정병규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용화 정재택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창환
주수일 주우영 자성철 차근구
천영무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희영 최정규 최창수 최홍길
최진희 최재필 최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한선서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태욱 고대라 고영주
곽진석 곽준환 권오습 권오혁
권용환 권기섭 권영수 김 남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인 김기영 김민순
김민찬 김병세 김병현 김병호
김병순 김병목 김병상 김병국
김성국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옥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호 김 원 김의덕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호
김홍준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걸
김형식 김형중 김희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준 나 영 나영욱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인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맹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정호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국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종수 박동훈 박영복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우형 박일근
박영범 박일환 박지수 박재두
박지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홍균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백종진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열 서성현 성주명
송기철 송정래 송태복 송동섭
송영범 송중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한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화철 신현수 심길성 심화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경 양종식 오이식 윤내훈
양성복 양정환 오병진 서명호
우성구 원종호 유병진 서명수
유 형 육동진 윤석우 윤석주
윤영관 윤현덕 이경호 이경훈
이광산 이규현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도규 이동욱 이백용
이봉의 이상도 이상을 이서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영 이은일
이영복 이영진 이은영 이인용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일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현규 이흥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대서 정영규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용화
정진하 정태경 정과중 정희정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영주 조희동
주재광 진종구 차준환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안 최용호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식
한창기 한홍희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남식 홍성호 홍의택
홍성표 홍종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김창수 김대성 김창근 박성근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임대지
장국록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진국 지성환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김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권태식 박자인
박형규 양소중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환
최원호 최종훈 추교범 합지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진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혜근 김경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봉규 박정규
손창우 송지형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진 이민희 이병근
이수정 이성민 이태희 이수연
이혜경 임진숙 조익현 정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환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화정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배영근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지연
안희준 안희준 안희준 안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웅
송영동 송재호 유현목 이민옥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초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종재 정장철

◆부목사

강구인 강일영 강일하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근식
김성연 김성진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식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빈
배성우 변법섭 서성광 서인식
손 담 손미경 신영을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이경호
이미영 이성은 이은택 이우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재훈 전상현 전홍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경호
진영국 최 욱 최정현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건우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김현정 마커스 문성희 박미은
박승훈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신기원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서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이재경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지자영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최재훈 최정훈 한현희 호산나
코바야시 매구 헨소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essica Yi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시안 김준영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서인택 윤영오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사무장로

고성환 권우중 김재동 박호택
성현제 손정래 신술문 신종수
여훈필 우승호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현 이준상
정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임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강동민 김병훈 김연수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임현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범

◆**성가사**

고양자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보경 김진용 김현희 김홍규
남영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정 엄지영 여훈필
엄해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섭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7/15(목) 송파A 고 김윤성 성도
7/16(금) 성동광진 김주영 성도 부친상 고 김순석
7/16(금) 광명 이동궁 성도 부친상 고 권병기
7/17(토) 노원 김혜련 성도 시부상 고 한정희
7/17(토) 강촌 강혜성 성도 부친상 고 강경직
7/19(월) 분당B 주성림 성도 부친상 고 주원도
7/20(화) 영여예배 권옥경 성도 부친상 고 권오상
7/20(화) 관악금천 이원희 성도 본인상 고 이원희
7/20(화) 복누리 전순영 집사 부친상, 여규태 성도
 빙부상 고 전운식
7/21(수) 여의도 허윤영 성도 부친상 고 허만기
7/22(목) 서대문 고 이육연 장로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노남자중장기청소년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별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지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요청
내용: 함대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용품 및 생필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서울시민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맞춤직업 일자리 알선을 통한 재취업 지원
(경비원,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 체험동 봉사자 모집
내용: 파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동 활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60)

서초구립 느티나무센터 시니어 크리에이터 오디오션
내용: 서초구 5070 대상, 1인 방송 활동가 선발 & 육성, 무료교육 및
유튜버 활동 지원
문의: 김재훈 파디(02-6953-7133)

서초50플러스센터 사,이,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이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으로 제출
문의: 선조원PM(070-4304-0913)

재 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넛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케이션관)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 고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 채용
모집: 재정 간사 1명, 행정 간사(NGO/지원) 1명
조건: 경력자 우대, 정규직, 3개월 수습, 4대보험
근무: 화~토 근무, 양지 Acts29비전빌리지 3층 TIM
일정: 서류심사 후 2차 인터뷰 진행
문의: 070-4464-8102, tim@tim.or.kr(제짜운선교사)
*www.tim.or.kr 참고

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이 있는 분
문의: 김재혁(010-3353-9150)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9월 27일~ 10월 8일 17:00까지
문의: 02-570-7192
*www.ttgu.ac.kr 참고